



외국인 매도와 자산배분(요약)

1. 올해 외국인 매도는 주로 연기금, 대학기금, 헤지펀드

-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계 자금이 9조 3120억원을 팔면서, 외국인 순매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 일반적으로 미국계 자금과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임. 뮤츄얼펀드 이외에 연기금 등이 자산 리밸런싱을 위하여 주식을 매도
- 7월에는 데이퍼링,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영국·캐나다 등에서 우리나라 주식 주로 매도

2. 해외 기관투자자는 주식 비중 상당 부분 진행

- 연기금 등 해외기관투자자들은 1년 가까이 자산 리밸런싱을 해오고 있는 상태로, 상당 부분 리밸런싱이 진행. 6개월 간 해외의 주요 연기금은 대부분 주식 자산의 비중을 줄였고, 채권과 유동성의 비중은 줄였음

3. 외국인 매도 강도는 약화될 듯

- 테이퍼링 등 매크로 환경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순매도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는 약화될 것으로 보임

1. 올해 외국인 매도는 주로 연기금, 대학기금, 헤지펀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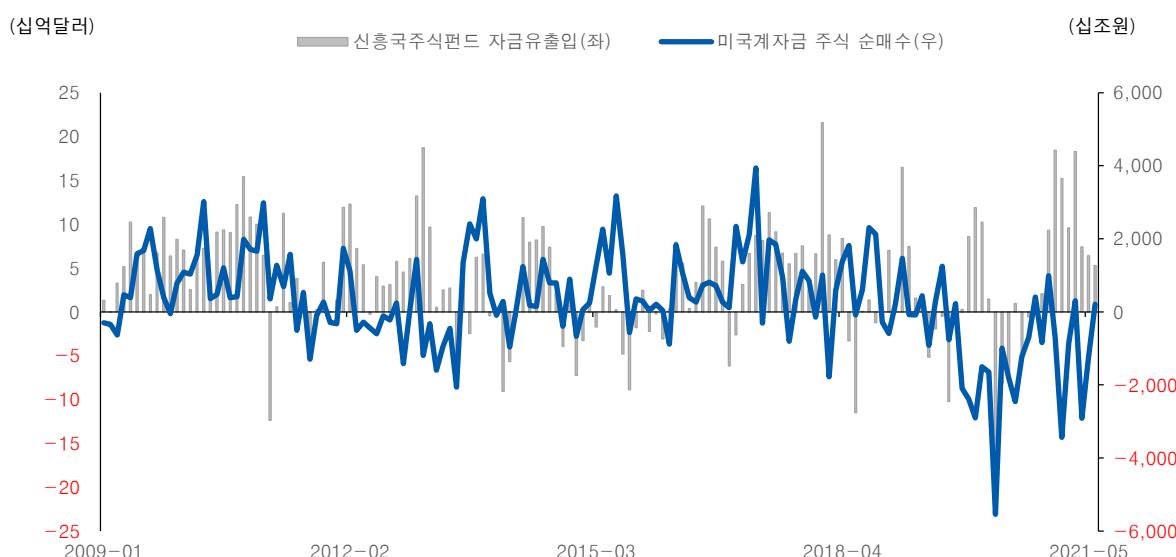
환율변동, 테이퍼링 이슈 등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외국인 투자자로 통칭되어 불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적과 투자 자금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중에서는 미국이 9조 3120억원을 팔면서, 외국인 순매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부펀드 비중이 높은 쿠웨이트는 같은 기간 1조 5030억원의 우리나라 상장 주식을 순매수하였다. 올해 순매도 규모가 큰 국가로는 영국(2조 7600억원), 스위스(2조 6150억원), 케이맨제도(2조 580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영국과 케이맨제도는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환율 등 거시지표 변동성에 매우 민감한 투자 패턴을 보여왔다. 7월 미국은 2120억원의 상장주식을 순매수하였지만, 영국은 2조 3170억원의 상장주식을 순매도하였다.

미국계 자금은 일반적으로 신흥국 관련 주식 펀드 자금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올해는 펀드보다는 연기금 등이 매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차트1] 우리나라 1-7월 미국계 자금과 신흥국 주식펀드는 이례적으로 연관성이 크지 않음



자료: 금감원,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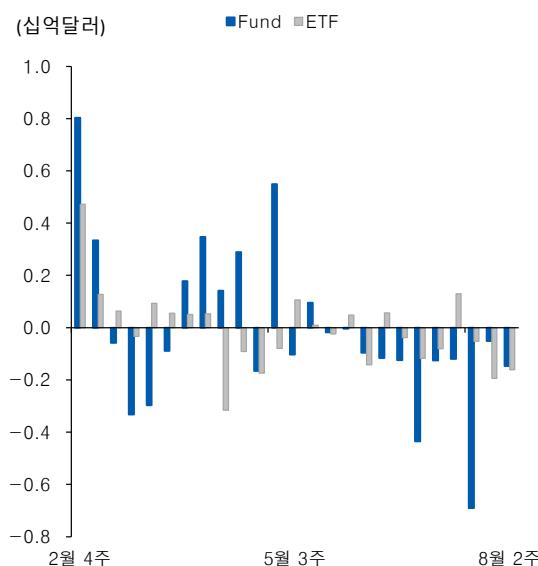
2. 글로벌 신흥국 관련 펀드는 투자심리 약간 회복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던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는 헬타변이와 테이퍼링 우려로 4월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선진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7~8월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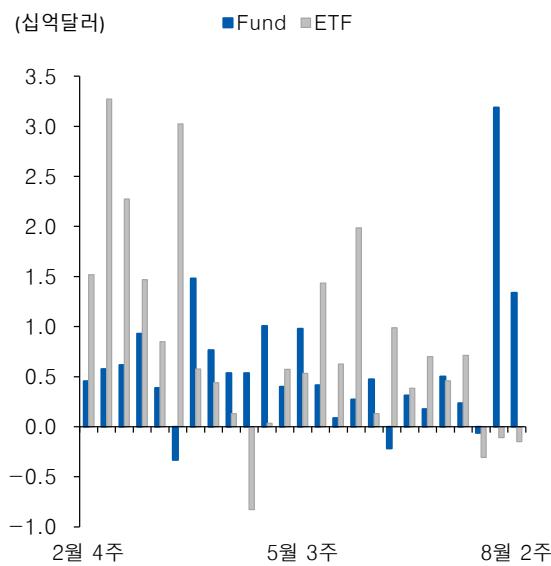
선진국 주식펀드의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다. 미국 주식ETF는 7월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유럽주식ETF도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유출이 되었던 유럽주식펀드는 순유입 전환하였다.

신흥국 주식펀드로 투자자금이 늘어도, 펀드 내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대만은 9.6%에서 10.7%로 크게 늘었고, 중국은 28.4%에서 26.3%로 줄어들었다. 신흥국 주식펀드 내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10.3%로 올해 상반기 0.2% 증가하였다.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IT 비중을 줄이면서, 7월 이후 신흥국 펀드 내에서 우리나라 비중(펀드 단순 평균)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챠트2]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 순유출 규모 감소



[챠트3] 신흥국 주식펀드, 순유입 규모 증가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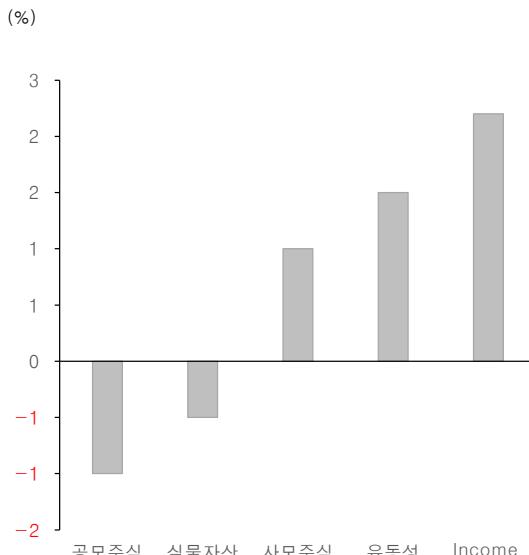
3. 해외 기관투자자는 주식 비중 상당 부분 진행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자산을 이익실현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갔다. 대신 해외 연기금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채권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소폭 늘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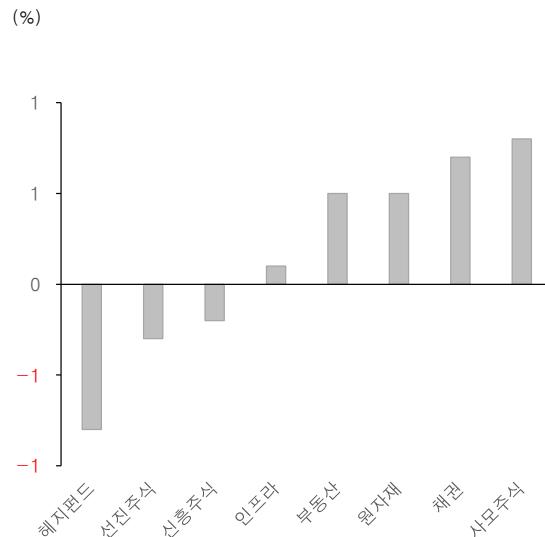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최근 자산배분 변화를 보면, 공모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과 유동성·사모주식의 비중을 늘렸다. CalPERS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Income 자산 비중을 2.2% 늘리고, 공모주식 비중을 1.0% 줄였다. ABP도 2021년 상반기에 사모주식과 채권 비중을 각각 0.8%와 0.7% 늘렸다. 반면, 선진주식과 신흥 주식 비중을 각각 0.3%와 0.2%, 헤지펀드 비중을 0.8% 줄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일본의 GPIF도 채권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였다. 연기금 등은 목표 투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한 주식 자산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테이퍼링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도 주식 자산 비중 축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차트4] CalPERS의 최근 6개월 자산배분 변화



[차트5] ABP의 최근 6개월 자산배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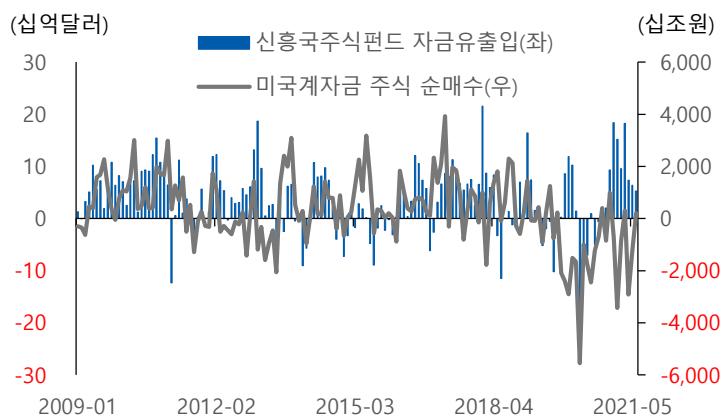


자료: CalP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3월 기준

자료: CalP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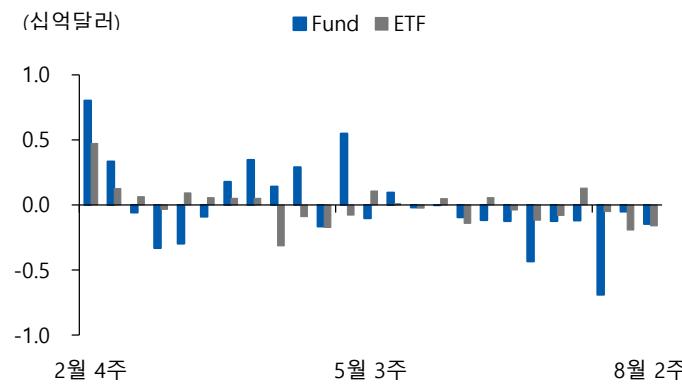
Key Chart

최근 미국계 자금과 신흥국 주식펀드는 이례적으로 연관성이 크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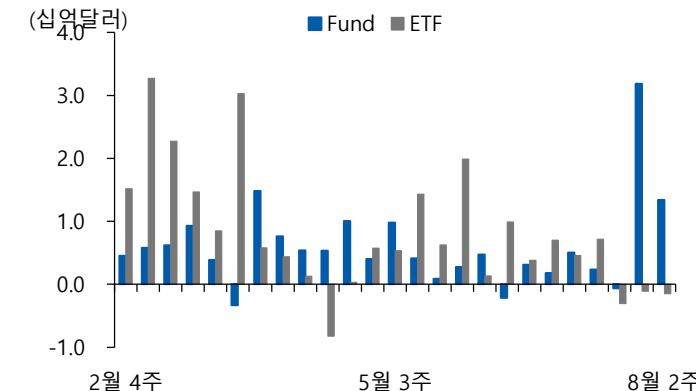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펀드와 ETF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